

“목동철거민은 울고 있다”

도시빈민의 탄생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등 식민지 침탈 정책으로 인해 토지에서 소외된 농민들은 대거 이농을 하였다. 농촌에서 이탈한 이들은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도시로 들어가 낱품을 파는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불안한 생활 근거를 지닌 이들은 낱품팔이 지게꾼 등 일일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도시 인근 빈터, 특히 서울 4대문 밖의 언덕, 산간에 토막을 지어 생활을 하였다. 지금의 신당동 아현동, 영등포 일대 야산에 토막을 지어 무리를 이루고 생활한 것이다. 일제시대 식민지 침탈 정책으로 발생한 도시빈민의 시초였다.

이들 토막민들은 일제의 도시정화사업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인 토막에서조차 쫓겨나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빈민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철거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철거민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초보적인 운동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한편 1920년대 중엽 이후 소수 이농민들은(연간 15만 명의 이농민 중 약 11%) 공업 및 기타노동자로 전락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 실정과 노임체불 등의 착취 하에 동맹파업, 태

업, 집단 소요 등 다양하게 저항하였다. 비록 이들은 공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노동조직들과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도시빈민의 활동

해방이후인 1945년 11월 13일에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는 대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빈민과 실업자 대중을 주요 동력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월남민들의 증가는 도시 주변에서의 판잣집과 막일 행상 등으로 생계를 이루는 빈민계층의 증가를 낳았다. 또한 4.19이전의 극심한 불황 등은 곧바로 도시빈민의 생계에 위협을 가져왔으며 이는 도시빈민으로 하여금 곧바로 4.19혁명의 광범한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농촌의 이농 현상을 가속화하였으며, 이들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은 대도시로 이농하면서 거대 빈민 혹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이들이 무단으로 지은 불량주택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의 도시 이윤 집중가치정책으로 인해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었다.

70년대 초의 철거정책은 도심지의 무단 점유자를 시 외곽으로 집단 이주시키거나 시영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계획은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시영아파트 입주비용이 없어서 입주권을 전매·전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80년대 들어 중동건설붐이 가라앉으면서 국내 건설회사가 국내로 철수하게 되는데, 이들 건설자본은 막대한 과잉자본을 형성하여 그 출구를 정부 측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바로 도시빈민지역 철거로 나타났다.

도시빈민들의 조직적인 철거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1984년부터 시작된 목동철거투쟁이라 할 수 있다, 목동철거투쟁은 빈민지역에서 주민운동을 하던 이들과 학생운동을 하던 이들이 대거 결합하면서 옥외집회만 100여회를 넘었을 정도로 격렬했다. 이를 계기로 '도시빈민운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결성된 조직이 1985년 결성된 '천주교 도시빈민사목위원회'(천도빈)와 1986년 결성된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빈협)이다.

이후 도시빈민은 상계동, 양평동, 사당동 등 크고 작은 여러 지역에서 철거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87년 6월항쟁 당시 명동에서 장기간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은 자주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결국

1987년 7월 17일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집단적 위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자, 농민, 학생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도시빈민관련 사료 기증

2002년 1월 18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3박스 3,000여건의 도시빈민운동관련 사료를 기증하였다.

한국도시연구소는 1986년부터 도시빈민지역에서 현장실천을 위주로 활동했던 <도시빈민연구소>와 1988년 설립되어 공간환경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온 <한국공간환경연구회(현 한국공간환경학회)>가 힘을 합해 1994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사회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물론 기증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한국의 빈민운동의 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이 연구소에서 기증한 사료는 다양하다. 성명서, 자료집, 신문스크랩, 간행물 등 그 유형도 다양할 뿐

1989년 7월 노점상 명동성당 대투쟁시 가두투쟁 사진 (한국도시연구소 제공)





1989년 7월 5일 천도빈 서부지역 활동을 한 유숙경씨의 집이 목동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철거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 제공)

목동 철거민은 울고 있다.

여러분!

여기 가난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을 보소서.
 서울시가 신시가지를 건설 한다고 이 지역 주민 세입자 1,870세대가 철거에 떨고 옥만속에 살고 천막에서 펴며, 몸부림을 친다.
 돈벌이도 살아야고 단돈 10만원 2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불명분이 살아 왔던 빈 장천 하늘에 날려라, 철거청이 왜합니까? 철거라니, 살려달라 애원했다 걸고 었다 호소 했고 못나간다. 하여 봐고 최소한의 주거책 세워달라, 대화로서 건의 했고 관계 호소해 진정도 했다 작게는 몇십명 크게는 수백명 거리로 뛰어나와, 농성, 데모를, 사십이 차려나 했다. 그래도 시장님도 대답이 없고 공사에 전진 조치 수반 가능 처는구나. 담당자다 안을 초치, 들어오고 건물 시공, 불어보소 서울시장 안 이혼곳 있는가를 철거민도 국민의회 세입자도 기민단체, 농성, 집회, 집회, 시복, 연인, 실애, 연애, 갈곳없는 이, 사형들, 거리까지 농민했고 가난도 돈이 없다. 도약 주요 영계들, 구해주오 차매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가난도 죄가 되나 발로 차고 밟아대고 몽둥이로 부치기 이게 때려치고 여리가 깨어져서 유혈이 낭자 안도록, 미물 취급 하지말라.
 2) 주거 대책 못한다면 그대로 살게 하라.
 어느 날 아이치시어, 도약주 소서.
 3) 낡은 세대 건물들이 있으면 적어도 어느 동국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분이여 여기 목동 세입자에게 일몰 주소서
 그리고 같이 있다면 인도해 주소서.
 주권을 기도 하면서.
 목동 철거민 세입자 드림.

<목동철거민성명서>

목동 철거민 세입자들이 서울시장에게
 대책을 호소하는 성명서(한국도시연구소 기증)

아니라 철거투쟁에 대한 보고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천도빈, 기빈협 등의 활동 기록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 도시빈민 서울대회 (1989년) 관련 사료도 있다.

도시빈민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목동 철거민 세입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목동 철거민은 울고 있다”라는 한이 섞인 부르짖음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철거민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료라고 여겨진다.

목동 철거민은 울고 있다

여러분!

여기 가난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을 보소서.
 서울시가 신시가지를 건설한다고 이 지역 주민 세입자 1,870세대가 철거에 떨고 혹은 속에 떨고 천막에서 떨며, 몸부림을 친다. ...철거라니, 살려달라 애원했고 갈 곳 없다 호소했고 못나간다 싸워봤고 최소한의 주거책을 세워달라, 대화로서 건의했고 ... 거리로 뛰어나와 농성, 데모를 사십 차례나 했다. 그래도 시장님은 대답이 없고 ... 답답하다 한숨소리, 들어보소 서울시장, 물어서 열 손가락 안 아픈 곳 있는가를 ... 도와주오 형제들을, 구해주오 자매들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으라면 죽을테니 말 좀 하소 서울 시장님 서울 시장님은 들으시오

...

가난도 죄가 되나 발로 차고 밟아대고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누고 머리가 깨어져서 유혈이 낭자하도록 미물 취급 하지 말라

...

목동 철거민 세입자 드림